

Session 20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며 큰 자가 됨 (마 7:13-27)

(Being Wise and Great in God's Eyes)

I. 복습: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 7:13-14)

A. 성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추구한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중적임)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대중적이지 않음) (마 7:13-14)

B. **넓은 길:** 많은 이들이 이 길에 대해 언급한다. 이 길은 제한이 적고, 많은 부분을 타협할 수 있기에 매우 인기가 있다. 또한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수용 가능하다.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아도 된다 (정욕 또는 자만심 등). 이는 관용과 허용의 길이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매우 관용적이며 넓은 마음을 가졌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C. **좁은 길:** 이 길은 적은 이들만 택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거절해야 하기에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다 (마 16:24). 이 길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확한 경계선이 존재한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 우리의 정욕들, 자만심, 탐욕 등.

D.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종들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영광스런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는 대중적이지 않고 인기가 없기에, 이에 대한 반대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 또는 광적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살기를 원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E. **쉬운 멩에:** 이에 대한 언급은 마 7:13 절의 내용과 상반된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에서의 쉬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영적인 짐을 말한다 (우리의 육신이 질 수 있는 육적인 짐을 말하지 않음). 예수님의 멩에를 매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삶의 모습의 멩에를 매야 한다. 이는 우리의 육적인 소망에는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와 만족으로 채우기에 우리 마음에는 쉬운 일이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9-30)

F. 우리의 육신에 힘든 것은 때로 우리 마음에 쉬운 멩에가 되기도 한다 (영적, 감정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쉬운 것은 때로 우리 마음에 어려운 것이 되기도 한다 (영적, 감정적으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쉬우면서” 자신의 육신에도 “쉬운” 길을 헛되이 찾기도 한다.

II.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마 7:15-20)

- A.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다.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 20 이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5-20)

- B.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교사들을 이리에 비유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좁은 길이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넓다고 가르치기에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위험하다. 그들은 넓고 쉬운 길을 “좁은 길”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넓은 길을 은혜의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한다.
- C.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어떤 사역을 오직 그 열매, 즉 말과 행동으로써만 시험하고 알아볼 수 있다 (마 7:16, 20). 우리는 열매의 증거 없이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분별하는 것에 근거해서 다른 이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비방과 비난의 문화로부터 지켜내신다.
- D. 대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오류를 알아챌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평판이나 매력, 그들에 대한 소문에 의해 현혹되지 마십시오.
- E.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타협의 경향성과 교리에 맞서되,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이를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에는 타협을 담대하게 거절하는 충성된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다.
1. 파괴적인 교리와 행위를 가진 사역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때가 존재한다 (마 18:15-17; 고전 5:1-11; 고후 11:12-15; 살전 5:14, 21; 살후 3:6-14; 계 2:2, 14-15, 20). 우리는 이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영으로 행해야 한다.
 2. 계 2-3 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7 개의 교회 중, 5 개 교회가 타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반대하시는 문제들에 대해 역시 반대해야 하며, 전체 교단이나 그리스도의 몸의 “흐름”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역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치게 하고 있는 주요한 타협에 대해 분별해내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사역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마 18:15-17).
- F. 미혹을 피하는 실질적인 길은 정기적으로,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일어나가며; 주께 순종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며; 다른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 나가며; 성경적인 교리와 예배를 지지하는 지도자가 있는 성도들의 몸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다른 이들로부터 교육과 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을 받기에 적합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III. 순종의 필요성 (마 7:21-23)

- A.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 순종을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7:21-23).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을 시작해서 (15-20 절), 거짓 신앙 고백자에 대해 말씀하신다 (21-23 절).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 7:21-23)

- B.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증거를 보이게 된다 (약 2:14-17).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된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선행을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은혜의 영향력을 더 강건케 하는 삶을 부인하는 것이다 (딤후 2:11-13). 행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행함이 없는 구원은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일이다.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4-17)

- C. 나더러 ... 하는 자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
- D. 초자연적인 사역: 이들은 자신의 인기 있는 사역이 자신의 진실한 믿음을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언과 축사, 치유의 기적에 대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다.
- E. 내게서 떠나가라: 이는 그들이 들어본 말 중, 가장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이 될 것이다. 그들의 초점은 대부분 자신의 사역에 대한 것이고, 순종의 삶을 기경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 F.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 대량 학살자도 아니며, 단지 음행과 술취함, 거짓말과 재정적으로 정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일 뿐이었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 G.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서는 왜곡된 은혜의 메시지가 있는 넓은 길이 얼마나 대중적이 될지를 말씀하셨다 (마 7:13, 22; 24:5, 11, 12).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 (마 7:22)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 7:13)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5-12)

IV. 지혜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됨 (마 7:24-27)

- A. 예수님께서서는 산상 수훈 말씀을 마치시며 우리가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다 (마 7:24-27). 그분은 우리가 교회 안에 너무도 대중적인 세속적인 문화의 가치들을 버릴 것을 설교하셨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드리는 지속적인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대중적인 사역일지라도 한 개인의 삶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불순종을 가릴 수는 없다. 비극적으로, 교회 안에는 많은 미혹된 이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시험될 것을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 B. 예수님께서서는 두 명의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서로 다른 두 성도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이셨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서,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우는 수고를 감내했다. 미련한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잠깐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 두 집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없는데, 이는 집의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산상 수훈 말씀 가운데 있는 가르침을 행하며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마 7:24-25).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산상 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 7:25-26)

- D.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들을 그 분 앞에서 위대한 자로 부르시며, 이는 그들의 외적인 성취나 사역의 크기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순종과 사랑의 크기에 기반을 둔 것이 될 것이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지속적으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1. 예수님께서서는 큼(위대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람의 눈 앞이 아니라, 그 분 앞에서 귀대한 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위대함은 다가올 시대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예수님께서서는 경고하시길,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축소하고 다른 이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가르친다면, 우리는 다가올 시대에 있을 그분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빙자하여 영적인 게으름을 부추기며,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부족한 삶으로 이끈다.
- E. **폭풍우:**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시험되어야만 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진실됨이 증명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영적이 기반을 시험하는 폭풍우는 2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삶에서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써, 우리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서 우리 삶에 대한 평가인데, 이는 우리 믿음의 참된 부분을 드러낼 것이다 (고전 3:11-15).

F.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길은 산상 수훈의 그분의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 7:26-27).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 7:26-27)

G.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며,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하심을 듣는 이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그룹은 모두 성경을 읽으며, 교회에 가며, 설교를 들으며 기독교 음악을 듣는 이들이다. 우리는 이 두 그룹들의 차이점을 매번 알아차릴 수 없는데, 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심이 되는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산상 수훈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추구해 나가는지의 부분이다.

H. C. S. 루이스는 거스르는 생각(resistance thinking), 즉 세상을 반대하지만 세상을 향하는 것에 대한 글을 썼다. 우리의 메시지는 세상을 긍정함과 동시에,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부패함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의 부르심과 존귀함을 동시에 선포해야 한다. (오스 기니스의 Prophetic Untimeliness(예언적인 시기상조)라는 책을 읽어보시오)

I. 영혼을 얻는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음악과 패션, 영화 등에 섞여 들어감으로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성도들은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켜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다.

J. 예수님의 메시지는 매우 엄숙한 것이며, 그분이 진지하게 경고하고 계심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K.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으려 하고 있는가?

L. 우리는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성경적인 메시지는 겸손을 불러 일으키며, 심령의 가난함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공물을 구하도록 이끌며, 예수님과 그분의 의로운 삶을 향해 배고픈 삶으로 이끈다.